

달러에서 시작해 중국으로 끝났다.

22 September 2017

02.788.7178 fno@hyundaifutures.com

● 전일 주요 시장 동향

✓**中 증시, 하락.**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에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부동산주와 원자재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 베이징에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 후 이러한 현상이 다른 도시들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부동산주가 약세. 원자재 업종지수가 1.7% 급락하는 등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품 가격을 따라 내림. 연준의 정책 발표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급등한 이들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에 나섬. CSI300지수는 0.1% 내린 3,838.12에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0.2% 하락한 3,358.19에 마감. **상해종합지수 -0.2%**

✓**美 증시, 하락.** 전일 뉴욕증시는 애플의 주가가 이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고, 올해 미국의 세 번째 금리인상 전망이 강화되며 내림세로 마감. 애플은 신형 아이폰의 수요에 대한 우려 속에 1.72% 하락하며 3대 지수에 최대 부담으로 작용. 애플은 이틀간 낙폭을 3.4%로 확대. 이는 지난 6월 이후 최대폭. 전일 연준은 취약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 번째 금리인상 가능성의 신호를 보냈고, 통화부양책을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연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얻은 4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국채,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보유 비중을 10월부터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힘. 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낮은 실업률과 기업 투자 확대, 완만하지만 내구력 있는 올해 경기 확장세 등을 이유로 들며 연내 추가 금리인상의 명분을 강화. **다우 -0.24%, S&P500 -0.30%, 나스닥 -0.52%**

✓**美 달러, 하락.** 전일 달러는 12월 금리 인상 신호로 확대된 베팅이 약화되면서 통화바스켓 대비 2주일여 고점으로부터 하락.

유로/달러 1.1892→1.1941 -0.4%, 달러/엔 112.22→112.48 -0.2%

✓**유가, 보합.** 투자자들이 감산에 합의한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금요일 회동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견지하며 좁은 박스권 움직임 지속. 주요 산유국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하루 180만배럴(bpd) 감산 합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감산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이들은 내년 3월까지 감산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 이와 관련해 많은 시장분석가들은 감산 합의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

WTI -0.28% \$50.55, 브렌트유 +0.25% \$56.43.

달러에서 시작해 중국으로 끝났다.

예상한 그대로다. 상승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일 비철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특히, 니켈과 아연의 경우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LME 니켈은 전일대비 5.97% 하락한 \$10720에 마감. 아연은 전일대비 3.04% 하락한 \$3043에 마감. 상대적으로 전기동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전일대비 1.21% 하락한 \$6456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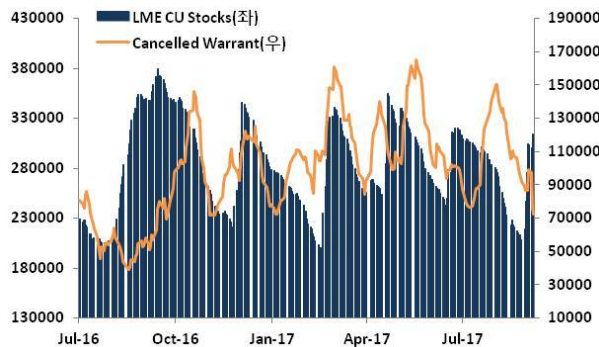
하락, 달러에서 시작해 중국으로 끝났다. 전일 하락의 물꼬를 튼건 분명 달러다. 미국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달러 강세가 비철 하락을 이끌었다. 하지만, 심화시킨건 달러보단 중국이다.

전일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중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하락을 자극했다고 본다. 특히, 강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게 부채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등급 강등에도 중국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에 반응은 차갑다. 거기에 이달 초 무디스가 교통은행의 신용등급을 정크등급으로 강등시킨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중국의 정부 및 민간부문을 통틀어 전체 부채가 GDP의 258%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보다 높은 수치이다.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당국도 조금씩 규제에 나서며 부채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럴 경우, 부채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과 과잉투자 산업들의 조정을 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이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산업시설들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향후 비철 수요감소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당분간 이런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 하지만, 다음달 예정된 중국의 제 19차 전국대표대회 전후로 추세는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이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결정하고 공표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여기서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이라는 큰 방향성을 유지할 것 알려진 상황이다.

그림 1. LME CU, 재고와 출하예정수량 추이 비교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Precious Metal

금 하락. 4주내 최저.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일에도 영향을 미치며 하락 지속.

금 현물은 뉴욕거래 후반 0.7% 내린 온스당 1291.46달러에 거래. 앞서 장중 저점은 1287.61달러로 8월 25일 이후 최저로 집계.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 12월 인도분은 온스당 1294.80달러에 마감.

연준은 전일 정책회의를 마친 뒤 최근의 약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연내 또 한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또 4조 2000억달러에 달하는 대차대조표를 10월부터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 품목별 주요 뉴스

✓ 전기동

- Peru's Las Bambas mine on track to meet 2017 copper guidance
- Chinalco Central China Copper to triple copper products capacity in Hubei
- China's copper smelters hike TC/RCs ahead of 2018 talks
- Brazil's Votorantim Metais files for New York, Toronto IPO
- Rio Tinto to increase share buybacks by \$2.5 billion
- China's Credit Rating Cut as S&P Cites Risk From Debt Growth
- Iron Ore Crushed Again as Burgeoning Supply Helps Bears Run Riot

✓ 알루미늄

- Auto drives Rio Tinto's North American aluminium expansion plan
- China's Henan to transfer more aluminium capacity out of the province
- Vedanta to restart power plants for Jharsuguda aluminium smelter

✓ 니켈/주석

- Universal Stainless Announces Stainless Base Price Increase
- SHFE raises transaction fee for January 2018 nickel
- Rio Tinto to increase share buybacks by \$2.5 billion

DATA

● LME PRICE(3M)

LME	시가	고가	저기	증가	Change(\$)	%	월 누적평균(Cash)
전기동	6,513.0	6,517.5	6,426.0	6,456.0	-79.0	-1.21%	6,478.2
알루미늄	2,178.5	2,199.0	2,140.0	2,157.0	-31.0	-1.44%	2,030.1
아연	3,125.0	3,125.0	3,025.5	3,043.0	-92.5	-3.04%	2,981.8
납	2,435.0	2,510.0	2,423.5	2,463.0	-2.0	-0.08%	2,357.3
주석	20,655.0	20,655.0	20,375.0	20,400.0	-305.0	-1.50%	20,570.0
니켈	11,345.0	11,355.0	10,620.0	10,720.0	-640.0	-5.97%	10,853.0

● LME STOCKS

LME	금일재고	Change (+/-)	Change(t)	On Warrant	Cancelled	In	Out
전기동	311,250	DOWN	2,600	238,950	72,300	900	3,500
알루미늄	1,300,200	DOWN	3,725	1,050,900	249,300	0	3,725
아연	264,750	DOWN	1,500	148,450	116,300	0	1,500
납	161,675	DOWN	900	102,350	59,325	0	900
주석	1,975	DOWN	60	1,865	110	0	60
니켈	380,058	DOWN	678	246,456	133,602	0	678

● PRECIOUS METAL PRICE

Prec. Metals	LBMA Fixing		SPOT		COMEX Prec. Metal	
	AM	PM	Last(Spot)	Net Chg.	LAST	Net Chg.
GOLD	1297.35	1292.1	1294.15	2.99	1294.8	-21.60
SILVER			17.05	0.06	17.018	-0.316
PLATINUM	940	933	947.5	2	941.4	-5.50
PALLADIUM	914	916	918.5	3	911.55	1.4

전기동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알루미늄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아연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납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니켈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주석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할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